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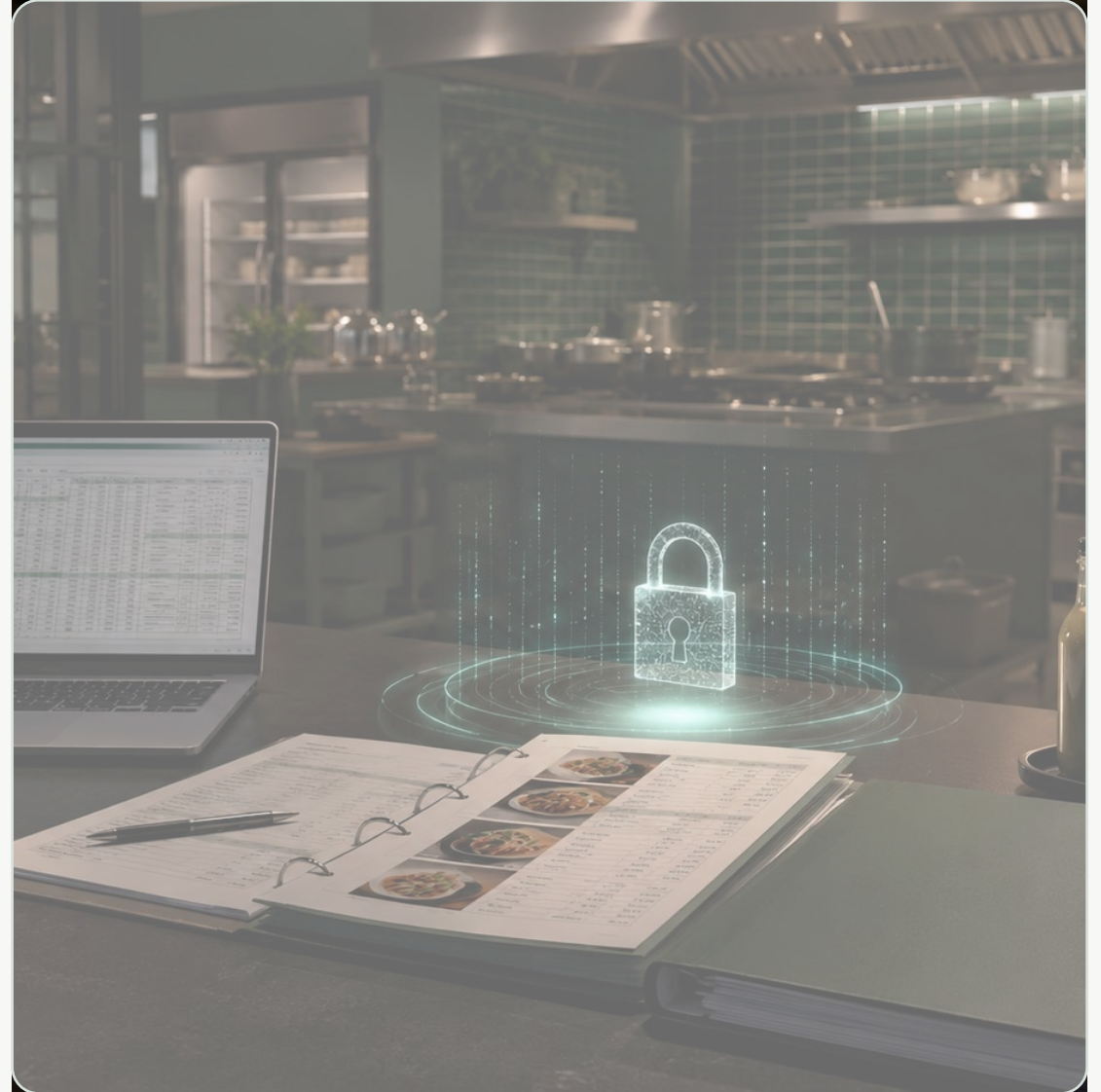
Investor Version · Pitch-ready

Gatekeeper for F&B

레시피·원가정보 유출을 막는 F&B 영업비밀 보호 솔루션

Office 문서 통제 제품을 F&B 본사와 프랜차이즈 시장으로 재포지셔닝한 투자자용 데크

레시피는 파일입니다. 파일이 새면 브랜드가 복제됩니다.



투자 논리: "문서보안"이 아니라 "브랜드 복제 방지"로 판을 바꾼다

제품은 이미 구현된 Office Gatekeeper. 첫 시장만 더 직관적인 F&B로 바꿉니다.

Wedge

레시피·원가 문서 차단

기존 Office Add-in + Box 구조로 빠르게 설치하고, 저장/반출 경로를 먼저 잠급니다.

Expand

FoodFlow 운영 데이터

문서금고에서 시작해 재고·발주·가격·메뉴 데이터로 확장합니다.

Platform

Secure F&B OS

레시피·원가·발주·거래명세서·문서로 그를 한 흐름으로 묶습니다.

회계·건축사무소보다 F&B는 왜 사야 하는지가 더 빠르게 전달됩니다.

기존 진입	F&B 진입
문서중앙화 실패	레시피·소스 배합비 유출
저장경로 통제	브랜드 복제 차단
보안 솔루션 구매	영업비밀 보호 투자

고객 고통: F&B의 핵심 IP는 이미 Office 파일에 들어 있다

레시피·원가·거래처 단가·공정 메뉴얼은 대부분 엑셀/워드/폴더 형태로 유통됩니다.

레시피 표준서

소스 배합비, 조리순서, 제조공정이 파일화됩니다.

원가표

메뉴별 원가율과 마진 구조가 엑셀 한 장에 모입니다.

거래처 단가표

납품처, 단가, 계약조건이 경쟁력의 일부가 됩니다.

가맹점 메뉴얼

교육자료와 운영 표준이 그대로 복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자·협력사 리스크

유출자는 해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부 복사본이 더 흔한 시작점입니다.

현재 대응 공백

대형 DRM은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무겁고, 일반 재고앱은 문서 반출을 막지 못합니다.

고객 고통: F&B의 핵심 IP는 이미 Office 파일에 들어 있다

유출시 형사처벌/손해배상 대상이 되나, 사전에 예방하거나 잡기에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미비합니다.

레시피 유출 리스크

퇴사자의 파일은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가표

메뉴별 원가율과 마진 구조가 엑셀 한 장에 모입니다.

거래처 단가표

납품처, 단가, 계약조건이 경쟁력의 일부가 됩니다.

소스 레시피 무단반출에 대해 업무상배임죄 인정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9.12.04.선고 2019고단3064
사건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A B C
판결 결과	피고인A징역6월(2년간집행유예), 피고인B징역8월(2년간집행유예), 피고인C징역4월(2년간집행유예)
영업비밀의 내용	레시피파일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12.17.선고 2023가단233943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주식회사 C
판결 결과	일부 인용
영업비밀의 내용	케이크 레시피 및 단가가 기재된 파일
사건 개요	<p>(사실관계) 원고는 식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회사는 빵 또는 떡류 제조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B가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피고 B는 관련 형사사건인 “①피해 회사에서 케이크 생산과 관련하여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 없고 비밀로 관리하던 케이크 레시피 및 원료명, 원료 사용량, 단가, 금액, 중량 정보, 계량수율, 공정수율, 로스율 등이 기재된 케이크 레시피 및 단가가 기재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저장·보관하는 방법으로 반출한 다음, 주식회사 C에서 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케이크 생산업체였던 주식회사 I에 위 레시피 및 단가가 기재된 파일을 제공하여 피해회사의 슈 치즈케이크, 얼그레이 케이크, 당근케이크, 레드벨벳 케이크 등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영업비밀 침해와 ②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케이크 레시피 및 단가가 기재된 파일을 퇴사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고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액수 미상의 레시피 연구개발비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에 대해 2022.11.1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0원을 선고받고 확정됨.</p> <p>(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p>
주요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형사사건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민사 침해행위 판단 - 손해의 범위

메일/카톡으로의 유출가능성
 주요 배합비, 성분비, 공급처가 유출되면 복제가 매우 용이해집니다.

Why Now: 외식업은 비용 압박 때문에 “원가·레시피 관리”가 생존 문제가 됐다

식재료비 부담과 낮아진 영업이익률은 F&B 본사에게 원가·레시피 통제의 명분을 만듭니다.

44.5%

식재료비 비중

2024년 기준 외식업체 영업비용 중 가장 큰 비중.

94.1%

식재료비 상승 어려움

식재료비 상승을 경영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율.

8.7%

평균 영업이익률

2020년 12.1%에서 하락한 수익성 압박 구간.

투자자 관점의 의미

원가율이 높고 이익률이 낮을수록, 레시피·단가·발주 문서의 유출과 혼선은 단순 보안 이슈가 아니라 손익 이슈가 됩니다.

Gatekeeper의 진입 논리

“전사보안”이 아니라 “원가와 레시피가 새지 않게 하는 최소 통제”로 팔 수 있습니다. 설치 범위도 좁습니다.

F&B 본사는 보안보다 레시피/원가 손실에 먼저 반응합니다.

시장: 프랜차이즈 F&B는 작지 않고, 본사 단위로 팔 수 있다

공정위 2025년 가맹사업 통계 기준 외식 브랜드와 가맹점 수 모두 증가했습니다.

10,886

외식 업종 브랜드

전년 9,873개에서 10.3% 증가.

183,714

외식 업종 가맹점

전년 180,942개에서 1.5% 증가.

3.51억

가맹점 평균 매출

외식 업종 평균 매출액. 전년 대비 6.1% 증가.

구매자

프랜차이즈 본사 / 다점포 운영사
/ 소스·양념 제조사

사용자

본사 직원 / 메뉴개발팀 / 구매팀
/ 가맹관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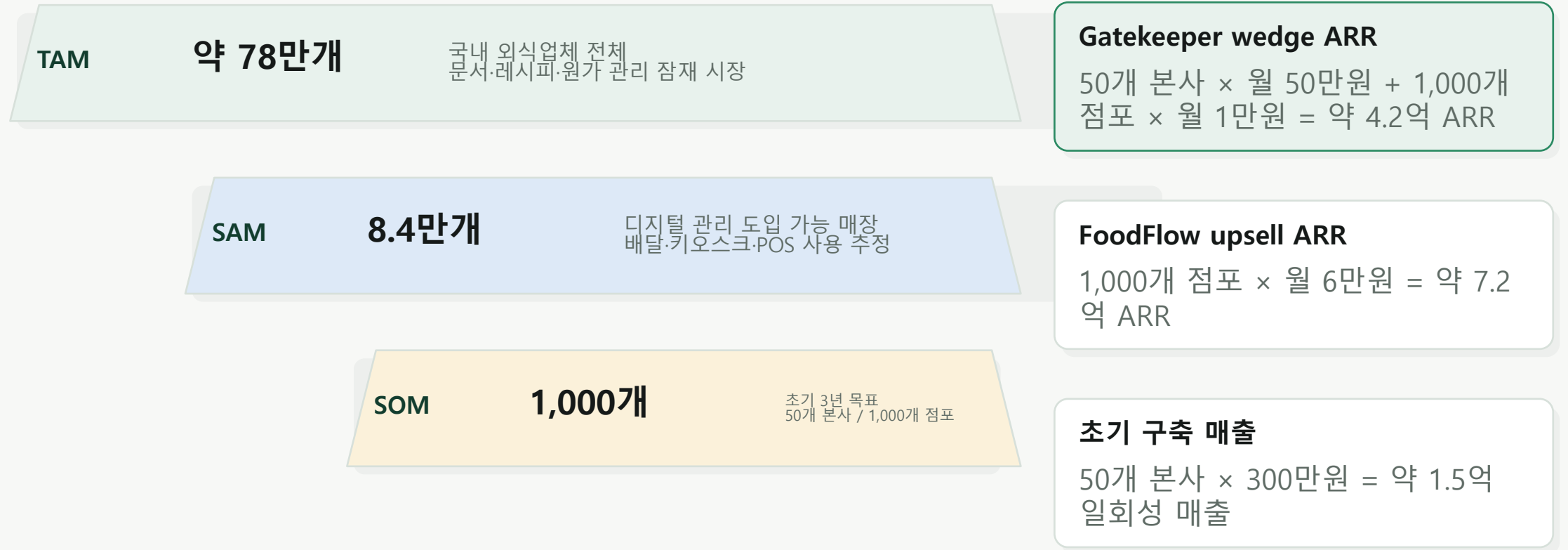
확장 단위

본사 PC → 점포별 문서관리 →
FoodFlow 운영 데이터

식당 하나씩 파는 구조가 아니라, 본사를 잡고 점포망으로 확장하는 구조입니다.

TAM / SAM / SOM: Gatekeeper는 wedge, FoodFlow는 upside

초기 매출은 문서통제에서 만들고, 이후 식자재·발주·원가 자동화로 ARPU를 키웁니다.



초기 SOM은 작게 잡되, 본사 단위 레퍼런스가 쌓이면 점포망과 운영데이터로 확장됩니다.

제품: Office 저장행동을 통제하는 온프레미스 Gatekeeper

Heritage Inc. · Gatekeeper

OPEN · SAVE · SAVEAS · EXPORT의 시작점에서 허용 저장소를 강제합니다.



차단
Desktop / Downloads / USB / 임의 로컬 경로 저장 차단

기록
사용자·파일명·시각·시도 경로를 감사 로그로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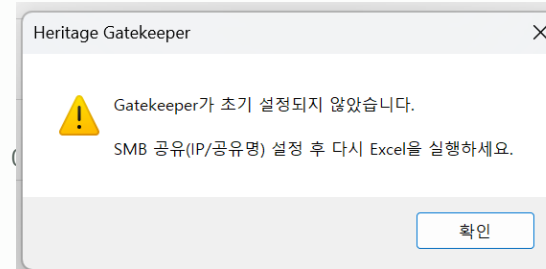
운영
고객 데이터는 외부 클라우드로 나가지 않고 내부망에서 검증

제품 초기설정 화면 / 작동은 피칭 시 시연예정

시연 기능은 매우 단순하나 사진으로 담기는 어렵습니다.

스크린샷 01 · 관리자 설정창

스크린샷 03 · 오류창



보호 대상 문서 예시

소스 배합표_v3.xlsx
 메뉴별_원가표_2026.xlsx
 거래처_단가표_냉장식품.xlsx
 가맹점_운영매뉴얼.docx

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능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GTM: Account Based Marketing으로 “진단 → PoC”를 만든다

무료 문서관리시트는 미끼가 아니라 고객의 보안 공백을 드러내는 진단 도구입니다.

첫 제안 문장

“대표님, 보안 솔루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른쪽 문서관리시트를 추가로 드립니다.”

ABM 시퀀스

Step	고객 반응	전환 포인트
1. 무료 제공	문서관리시트 수령	레시피·원가 문서 목록화
2. 진단 미팅	문서 위치 공유	허용 저장소 설계
3. 차단 데모	실제 파일 저장 시도	PoC 필요성 확인
4. PoC	3~5대 설치	로그 리포트 제출

Heritage Inc. | 문서 유효기간 관리대장

파일 원본을 스캔하지 않고, 문서 메타정보와 인덱싱만 관리하는 실무용 대장입니다.

파란색 글씨는 입력칸, 검정 글씨는 자동 계산칸

총 문서 수	3	만료	1	7일 이내	0	30일 이내	1	
문서명	문서종류	담당자	발급일	만료일	남은일수	상태	보관위치	비고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서류	경리팀	2026-03-01	2026-06-01	16	30일 이내	공유폴더/법인서류	예시 데이터
국세 완납증명서	세무서류	경리팀	2026-04-01	2026-05-01	-15	만료	공유폴더/세무	예시 데이터
사업자등록증	법인서류	대표	2025-01-02			확인 필요	원본파일실	유효기간 없으면 비고에 관리 방식 입력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확인 필요		

“보안 제품 사세요”보다 “문서가 어디서 새는지 같이 정리해봅시다”가 훨씬 덜 부담스럽습니다.

Pricing & Packaging: 처음엔 가볍게, 본사 단위로 점점 크게 판다

투자자에게는 “얼마에, 어떤 단위로, 어디서부터 돈이 나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패키지	대상	구성	가격
PoC	본사 3~5대	Box 1대, Add-in 설치, 2주 로그 리포트	100~200만원
Basic	본사 10대 내외	정책 세팅, 운영 교육, 월 유지보수	구축 300만원 + 월 30만원
Franchise HQ	본사 + 점포망	본사 정책 + 점포 템플릿 + 계정 확장	구축 500만~900만원 + 점포당 월 1만원
Enterprise F&B	식품제조/유통사	맞춤 정책, ERP/POS/문서연계	별도 견적

가벼운 시작

PoC는 “차단이 실제로 되느냐”를 확인하는 짧은 계약으로 설계

본사 확대

일단 본사 문서를 잠근 뒤, 점포와 계정으로 자연스럽게 확장

업셀 경로

문서보안 → FoodFlow 운영 데이터 → 맞춤 API/리포트

경쟁구도: 오피스키퍼와 유사한 축이지만 첫 시장과 제품 초점이 다르다

오피스키퍼는 통합 PC보안·DLP 시장의 검증된 강자입니다. Gatekeeper는 F&B 레시피·원가 문서라는 더 좁은 wedge로 진입합니다.

유사성 인정
 둘 다 PC·업무문서 기반 정보유출 방지 문제를 다루며, 파일 반출 경로와 로그/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공유합니다.

차이점 명확화
 Gatekeeper는 전사 통합 보안 전체 대신, Office 저장행동 통제와 F&B 핵심 문서 보호에 범위를 좁힙니다.

시장 포지션
 OfficeKeeper 검토 전 단계의 F&B 본사·프랜차이즈·소스 제조사를 대상으로, 가법게 시작하는 PoC형 제품입니다.

비교항목	오피스키퍼 / 지란지교소프트	Gatekeeper for F&B
제품 범위	통합 PC보안: DLP, 민감정보관리, 웹/SW 차단, 문서백업, 출력물보안 등	Office 저장·열기·내보내기 시점의 허용 저장소 통제
대표 고객	범용 기업 보안 담당자, 중소·중견기업 전반	F&B 본사, 프랜차이즈, 소스·양념 제조사
구매 명분	기업 PC 보안과 정보유출방지 체계 구축	레시피·원가표·거래처 단가표 유출 및 브랜드 복제 방지
도입 방식	다기능 에이전트 기반 전사 보안 운영	3~5대 PoC → 본사 PC 확산 → 점포망/문서관리 확장
우리의 포지션	직접 대체가 아니라 상위 범용 DLP 시장의 존재를 검증 근거로 활용	더 좁고 빠른 vertical wedge: F&B 영업비밀 보호

Gatekeeper는 오피스키퍼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만, F&B 레시피·원가 문서라는 더 좁은 첫 시장을 공략합니다.

Sources: OfficeKeeper official site / product pages describe 7 integrated PC-security functions and DLP controls including removable media and file attachment blocking.

Expansion: FoodFlow 조사에서 검증된 운영 문제를 업셀 근거로 쓴다

현장 문제는 재고·발주·가격·메뉴 정보가 연결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Gatekeeper는 그 데이터의 안전한 시작점입니다.

① 문서 금고

레시피·원가·단가표를 먼저 승인 저장소에 고정

② 데이터 구조화

레시피 BOM, 발주표, 거래명세서를 데이터화

③ 운영 자동화

재고·유통기한·가격·메뉴 추천으로 확장

④ OS화

F&B 보안 운영 플랫폼

FoodFlow 조사 포인트	Gatekeeper 투자자용 해석
재고·발주·가격·메뉴가 분리됨	문서와 데이터가 먼저 중앙집중화되어야 함
수기·엑셀·전화 발주 의존	초기 진입은 Office 파일 통제가 자연스러움
가격 상승·폐기·중복발주 반복	원가표와 거래처 단가표 보호가 손익에 연결됨
프랜차이즈는 레시피와 프로세스가 정형화	본사 단위로 팔고 점포망으로 확장 가능

실행 준비도: 새 제품이 아니라, 이미 만든 제품의 첫 시장을 바꾸는 전략

개발 리스크를 낮추고 영업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Built

Office Gatekeeper

VSTO Add-in, Gatekeeper Box, NAS 정책, 로그 구조까지 구현된 상태.

Validated

F&B pain

FoodFlow 조사로 재고·발주·원가·메뉴 문제와 고객 언어 확보.

Ready

ABM kit

문서관리시트, 5분 차단 데모, PoC 체크리스트로 영업 가능.

우선 공략 ICP

돈가스/치킨/소스 브랜드, 10~100개 점포 규모의 프랜차이즈 본사, 소스·양념 제조사

다음 90일

F&B 타깃 50곳 리스트업, 3개 PoC 확보, 차단 로그 리포트 생성, 가격표·설치 매뉴얼·유지보수 SLA 확정

3년 매출 시나리오: 본사 계약이 쌓이면 ARR이 보인다

보수적으로 50개 본사 / 1,000개 점포 기준부터 제시합니다.

구분	Year 1	Year 2	Year 3
F&B 본사 수	5	20	50
관리 점포 수	50	300	1,000
초기 구축 매출	0.15억	0.45억	0.90억
Gatekeeper ARR	0.42억	1.56억	4.20억
FoodFlow 업셀 ARR	0.00억	1.44억	7.20억

핵심 가정

본사 월 50만원 + 점포 월 1만원.
FoodFlow 업셀은 점포 월 6만원 기준.

투자자 관점

초기 매출보다 중요한 것은 F&B 본사
레퍼런스와 점포망 확장성.

리스크 관리

PoC는 3~5대 PC부터 시작해 기술·운
영 리스크를 낮춤.

투자/지원금 사용계획: F&B 패키지화와 레퍼런스 확보에 집중

개발비보다 시장 진입 패키지와 실증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제품 패키지화

설치 자동화 – 대당 20만원 선
 F&B 정책 템플릿
 데모 스크린샷·영상
 로그 리포트 양식

시장검증

F&B 본사 50곳 ABM
 3개 PoC 확보
 레시피/원가 문서 진단
 유지보수 전환 테스트

운영 인프라

CS 매뉴얼
 NAS/Windows 테스트 환경
 장애 대응 프로세스
 보안키 발급 프로토콜 규정

마일스톤	산출물
M1: 30일	투자자 데모 영상, ABM 리스트, 문서관리시트 패키지
M2: 90일	3개 PoC, 차단 로그 리포트, 설치/운영 매뉴얼
M3: 180일	10개 본사 계약 후보, FoodFlow 업셀 MVP 설계

Closing: Gatekeeper의 첫 시장은 F&B가 더 빠르다

설치가 쉽고, 메시지가 강하고, FoodFlow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Why this

레시피·원가·거래처 단가표는 F&B의 핵심 영업비밀입니다. 파일 반출 차단은 즉시 이해되는 문제입니다.

Why now

식재료비 부담과 낮은 이익률로 원가 통제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F&B 본사는 손익과 보안을 함께 봅니다.

Why us

Office Gatekeeper는 이미 구현된 제품입니다. FoodFlow 조사를 통해 F&B 고객 언어와 확장 경로도 확보했습니다.

Gatekeeper는 레시피가 파일이 되는 순간부터 브랜드를 지킵니다.

재무정보: 1인 창업 기업, 저비용 고효율

설치가 쉽고, 메시지가 강하고, FoodFlow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Why This Company

470여만원으로
상용화가 가능 제품 개발 +
제품 아키텍처 설계 +
리눅스 기반 홈서버 구축 +
웹사이트 직접 포팅 +
업무프로세스 확립

What We Need

AI 서비스 구독료
본격적인 제안서 기반 마케팅
핵심기술 특허출원
핵심기술 임치 및 법률자문
DevOps 인력
사무실 임대 및 CS 인력 확충

Network

회계법인 아성
세무기장 대리 / 투자 관련 자문

특허법인 YNP
국내외 특허출원 / IP 관리

Gatekeeper는 시장 검증만 남았습니다.